

일주문



동국대 교직원·학생 수계법회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법산 스님은 5월 13일 오후 4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교직원 및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화엄신증명화 점안식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은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일원동 비구니회관에서 화엄신증명화 점안식을 봉행한다.



성주 자연체형학습장 개원
대구 우리절 불교대학 무량사 주지 일우 스님은 5월 7일 성주군 성주읍에 우리절 불교대학 성주자연체형학습장 개원법회 및 효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성북구민을 위한 법회
서울 성북구 사암연합회장 정수 스님은 5월 18일 오후 5시 성북구청 광장에서 성북구민을 위한 법회 및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7인 크스님 초청 설법대회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5월 19-25일 매일 오전 11시에 실상사 큰법당에서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 등 7인의 크스님 초청 설법대회를 연다.



'5·18 정신승화와 종교' 세미나
광주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 광민 스님(무각사 주지)은 5월 9일 무각사 불교회관에서 '5·18 정신의 승화와 종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신도회원 팔순 잔치
안양 지장선원장 현호 스님은 5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선원 대법당에서 팔순을 맞은 신도회원을 위해 잔치를 연다. (031)444-5935



일 PHP 동우회장 방한
일본 '변영을 통한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동우회(PHP)' 회장 마츠노 소젠(松野宗純) 스님은 5월 6일 한국 PHP 경영자 총회 참석차 방한했다.

손창대 前 탄허문화재단 이사장 별세

탄허불교문화재단 前 손창대(사진) 이사장이 5월 3일 숙환으로 향년 72세에 별세했다. 손 前 이사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59년 <사상계> 편집장, 66년 대한불교청년회 부회장, 70년 화엄학회 회장, 88-92년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철우 기자

제2회 불교학 결집대회 참가 외국학자들의 '한국불교학 평가'

“한국불교 아직 잘 모른다”



간노 히로시



주칭즈



장에이란



스즈키 켄타

“가까운 일본에도 한국불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번역된 논문들이 있지만, 한국 불교를 알릴 일반서적은 <한국불교사> (김영태 저) 정도만이 소개했을 뿐입니다.”

5월 1-2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제2회 불교학결집대회에 참석한 간노 히로시(동아시아 불교학회장) 교수가 말하는 한국불교에 대한 평가다. 간노 히로시 교수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와같은 국제학술대회를 일본이나 중국만이 아닌 유럽 등지에도 소개해야 한다”며 “한국 불교에 대한 연구성과를 알리는 등 한국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연구성과 알리기 적극 나서야
신진학자들 세계화 이뤄낼 것

이처럼 ‘한국 불교는 아직 잘 모른다’는 말이 결집대회에 참석한 외국 학자들의 일관된 대답이었다. 중국 북경대 중문과 주칭즈 교수도 “한국 불교가 남긴 자료들은 중국 불교학자들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한국 불교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며 “극히 일부 학자들이 중국과

한국 불교연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불교학자가 수만 명에 이르지만, 한국 불교를 전공한 학자는 거의 없으며, 한국 불교는 일본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1600년에 이르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최근 신진학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이 한국 불교 세계화의 바탕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고려대장경에만 남아 있는 <조당집>을 연구하는 중국 청화대 장메이란 교수는 “<조당집>은 현대 중국어의 기원을 연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한국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굴·연구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또 결집대회 최연소 참가자인 스즈키 켄타(중경대 박사과정) 씨는 “한·일 불교학자들은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젊은 불교학자들과의 잦은 왕래를 통해 불교학 연구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신행단체 활성화에 노력

경남불교협 5대 회장
우담 스님



“경남은 어느 지역보다 불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강한 불심을 근간으로 지역불교발전과 불교 현안 해결에 경남불교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경남 불교협의회가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4월 26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열린 경남불교협의회 2004년 이사총회에서 5대 회장으로 추대된 우담스님(쌍계사 주지·사진)은 경남불교협의회가 경남불교의 중심에서 불교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불교발전의 원동력은 승가와 재가의 화합과 조화”라며 “경남 지역의 신행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개

강릉장애인복지관장 취임
현각 스님



“장애인들이 자신 있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자기 개발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의 마당을 마련하겠습니다.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릉장애인복지관장에 임명된 현각 스님(원주 소적새마을 이사·사진)은 향후 복지관 운영방침을 이렇게 밝혔다. “복지관이 찾아가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강릉시내 3천여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해 스스로 즐기는 복지문화를 만들 생각입니다.”

스님은 이와함께 현재 운영 중인 ‘장애아동 주간보호소’와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부산 범어사 수계산림 회향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보인)는 5월 1-3일 제104회 금강계단 수계산림법회를 보제루에서 봉행했다. 2천 5백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회향식에서 전계사사리 흥교 스님은 “보살계는 생활에서 구현하여야 할 실천 덕목”이라고 말했다.

영천 육군3사관학교 수계법회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 총성호국사(주지 진공)는 5월 2일 (사) 불비니국제문화교류협회 소속 한국군법사후원회 후원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대성사 조실 도문 스님을 계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3백여 명의 사관생도, 30여 장병이 계를 받았다.

보감사 비로자나부처님 봉불식



경북 청도 보감사(회주 영담)는 5월 2일 사부대중 7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웅전에서 비로자나불 봉불식을 봉행했다. 동화사 비로암 범봉 스님이 증명법사로 봉행된 봉불식은 해동선원장 성수 스님의 법어,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사)미륵원 경로잔치 개최



(사)한국불교 미륵원(이사장 송정)은 4월 27일 경남 김해시 관음정사에서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잔치에서 송정 스님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불제자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양주 백화암 마애삼존불 점안법회



경기 양주시 불곡산 백화암(주지 보인)은 5월 4일 마애삼존불 조성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점안식에서 증명법사인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거대한 불사를 이뤄낸 원력이 널리 회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

천태종 금강불교학원 △갑사=전문모
천태종 △여주 성주사 신도회장=원문길 △송탄 송덕사 신도회장=신용철 △연기 래운사 신도회장=이갑수

佛紀 2548年 “부처님 오신날” 奉祝

BBS 公益 캠페인

“불교생명존중운동은 우리 산·절·물 지키기”

“우리 산을 지킵시다.”
“우리 절을 지킵시다.”
“우리 물을 지킵시다.”

불교방송, 신라 김교각스님 등신불 참배, 성지순례

중국 지장성지 구화산, 천하명산 황산·장가계

- 지도법사: 진명스님(BBS M.C), 종연스님(인천 수미정사)
■ 동참금: 1,360,000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출국세 포함)
■ 신청마감: 2004년 5월 22일까지
■ 출발일정: 6월 3일(木) 5박 6일
■ 현지법회: 구화산 육신보전에서 영가천도법회 봉행
■ 문의전화: 해외성지순례 담당: ☎(02)705-5301 ~ 3